

10. (가)에 비추어 볼 때, (나)의 ㉠ 학생이 행한 의사결정에 대해 교사가 수정해 주어야 할 점을 2가지만 쓰시오. [3점]

(가) 제7차 사회과 교육과정에서는 의사결정능력이 중시된다. 의사결정능력이란, 주어진 문제 상황에서 여러 대안을 고려하여 자신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나) 수업 상황

· ‘저출산의 문제점 파악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생각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의사결정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학습 목표를 세웠다.

· ‘대안 제시와 대안 선택 과정’에서 ㉠한 학생이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이 문제에서 제가 제시할 수 있는 대안은 네티즌들의 의견을 살펴보고 따르거나, 보건복지부의 대책을 따르거나, 부모님께 여쭙고 부모님의 의견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저는 전문 대책 기관인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

14. 다음의 ㉠과 ㉡에 해당하는 사항을 각각 쓰시오. [3점]

2003년 봄 이라크에 대하여 미·영 연합군이 군사 공격을 가한 일은 국제법에 어긋난 행위라는 견해가 있다. 이러한 견해의 법적 근거는 유엔헌장에서 찾을 수 있다. 유엔헌장에 따르면, 물리적인 힘(무력)은 ㉠ 2가지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다. 유엔헌장은 이 2가지 경우를 제외한 무력행사에 대하여 포괄적인 금지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1999년 나토(NATO)군은 코소보(Kosovo)에서 자행되는 인권 침해를 막고 코소보에서 피난 간 알바니아계 국민들의 귀향을 위해 유고에 대한 공습을 감행하였다. 당시 나토군의 무력행사에 대해 많은 논란이 벌어졌다. 이에 대한 입장은 크게 ㉡ 2가지로 나뉘었다. 유고에 대한 나토군의 공습은 이른바 ‘인도적 개입(간섭)’의 맥락에서 행해졌다.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1999년 제54차 유엔 총회 개막 연설에서 “인권 보호를 위해서는 주권 제한도 가능하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그의 이런 지적은 유엔에 의한 국제 개입주의로 요약된다. 이것은 특히 1994년 르완다와 1998년 코소보 사태 당시 유엔이 신속하고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엄청난 인권 유린이 자행됐다는 반성 속에서 나온 발언이다.

·㉠:

·㉡:

.....

